

북한 기도회

2024년 6월



1. 북한의 군사행보 중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 군비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핵 탄두의 기하급수적 생산과 핵 미사일 개발 뿐 아니라, 실제로 핵무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휘 통제시스템을 훈련하고, 한중일 정상회담(5월 27일) 직전에 6월 초 추가적인 위성발사를 예고하는 등 본격적으로 핵무기 운용 체계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군사 부분의 과도한 투자로 인한 민생 경제의 악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무기에 자신의 안녕을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만 가는 한반도가 주님의 돌보심 아래 살롬의 평화를 진전시켜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러우전쟁 종식과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전쟁 물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국제적 압력과 제재를 회피하고 식량과 기술 지원 등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지역의 분쟁에서도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다수 사용하는 모습이 관측되는 등 북한은 분쟁상황을 활용하여 세계 곳곳에 무기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다시금 핵 군비 증강에 투입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우전쟁과 중동 분쟁 등이 종식되고 평화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이 의지하는 소위 '신냉전'구도가 약화되고 북한의 국정 방향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3. 강제 복송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3년 10월 중국에서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매체는 또한 소규모 복송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시다.



4.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억류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들의 구명을 위한 교계의 각급 단체의 성명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언론을 통해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5. 북한의 심해지는 지도자 우상화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태아소 시절부터 김일성가문 우상화 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의 공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과목을 가리지 않고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정은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일컫는 호칭이었던 ‘태양’을 대신 김정은에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서는 김정은의 초상화가 김일성·김정은 초상화와 나란히 건물 외벽과 교실 벽면에 붙어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우상화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깊은 연관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잘못된 사상과 우상화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 받기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북한과 한반도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6. 해외 북한선교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 선교사는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수감 중인데, 러시아 법원은 6월 15일까지 간첩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모 선교사가 수감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

7. 북한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따뜻한 봄날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식량부족이 고조되는 보릿고개의 힘든 시기입니다. 지난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조금 나아졌고 러시아를 통해 식량을 공급받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있지만 올해도 식량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절대적인 생산량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을 통한 식량 거래 금지 및 국가 양곡판매소 운영에 따른 유통 상의 문제가 큼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식량도 군대와 건설사업장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가운데 정작 주민들의 식량난은 상당하다고 전해집니다.

북한 주민들이 춘궁기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당국의 식량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와 NGO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북한의 국경 통제로 인적 왕래가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